

## 역사 토론문

### 「김기협의 “탈-국가 시대의 역사학”에 관하여」

쉬이화(徐义华) / 중국사회과학원

본고의 저자는 학문 고찰의 출발점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국가적 관점에서 세계적 관점에서의 전이를 언급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때, 한자문명과 이슬람문명에는 ‘천하’와 ‘움마’를 중심으로 한 ‘달린 세계관’이 형성되었다면 유럽에는 무한경쟁으로 가득 찬 ‘열린 세계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근대세계의 국가 개념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베스트팔렌체제에 입각한 ‘국민국가’가 표준이 되었고, 학술적 사고 또한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통,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국가를 뛰어넘는 ‘탈-국가’ 메커니즘과 관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팔렌체제를 토대로 하는 ‘국민국가’는 폭력을 통해 신속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런 체제 속에서 민족은 국가에 기반을 둔 “상상의 공동체”로 인식되었으며 민족과 국가는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역사가 유구한 중국, 한국과 일본은 일찍이 민족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는데 국가의 형성과는 보조를 같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베스트팔렌체제에 입각한 국민국가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세 나라의 ‘민족’도 “상상의 공동체” 성격이 덧씌워져 민족과 국가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시아대륙의 동반부에서, 중국은 진 시황의 통일 이래 통합 상태를 정상으로 여기는 천하 관념이 자리를 잡았고 배타적 주권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통합을 실현하지 못했던 유라시아대륙 서반부의 국가들은 ‘내부’와 ‘외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전통이 생겼고 이런 경향이 배타적 주권을 내세우는 베스트팔렌체제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탄생합니다. 유럽이 무력으로 아시아의 문을 연 이후, 동아시아 3국은 베스트팔렌체제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은 천하 관념의 영향을 적게 받았고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적합한 생산력과 조직력을 갖췄기 때문에 서양식 근대화를 빨리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천하 관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트팔렌체제를 순조롭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컸으나 배타적 민족주의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원인으로 통일을 실

현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의 통일에 대한 요구는 때때로 민족 배타성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통일 다민족국가’ 이론은 민족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지만 ‘대한족주의’와 다양한 민족의 역사적 배경 차이가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국력과 거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였으나 19세기 이후, 중국의 국력이 줄어들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한중관계는 나날이 긴밀해졌고,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점차 밀접해지고 있는데 두 가지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중 양국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사상-이념적으로 서양에서 만들어진 체제를 깨트리는 동양의 요소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중·일 3국 학자들의 ‘역사 전쟁’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베스트팔렌체제에 입각한 근대국가 개념의 영향을 받는데, 이런 영향을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근대국가의 개념을 고대사 연구에 적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승자와 패자,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역사관보다 고통을 함께 이겨낸 생존자로서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의 ‘천하 관념’과 ‘하나의 세계’라는 역사적 경험을 참고하여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역사발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고는 베스트팔렌체제 아래의 국가 관념이 한·중·일 3국의 근대역사와 학술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중·일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으며 배타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베스트팔렌체제 아래의 근대국가 개념에 등장하는 민족주의와 배타성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한·중·일 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 베스트팔렌체제 및 그 개념의 한계를 돌파하고 세계적 관점으로 국가적 관점을 대체하고 동아시아의 ‘천하’와 ‘하나의 세상’이라는 경험과 관념을 바탕으로 역사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용어 사용과 문단 나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표현이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발표문의 상당 부분이 세계사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데, 전공 분야가 달라 논문을 완전히 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